

“도시철도 1호선 대안은” “옛 전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은”

중복되고 엉뚱한 질의 ‘얼빠진 의원들’

■ 광주시 국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핵심질문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질의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날 국감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방2반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주 자리를 뜨는가 하면 자신의 질의 차례가 와야 비로소 국감장에 들어오기도 했다.

감사에 나선 위원들은 이날 지방재정난이나 투자유치 문제, 5·18민주화운동 보상, 민자도로 운영,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 등을 집중거론했으나 이들 모두 지역 내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이었다. 특히 민자도로나 지방재정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돼야 할 사안으로, 번죽만 울린 수준이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도시재생사업, 도시철도 1호선 등에 대해 각 의원들이 2~3번씩 계속해 강운태 광주시장이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또 최근 광주와 전남이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공항 국제선 재유치와 관련 무안공항이 있는 무안·신안 지역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나섰으나 정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무안공항은 1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광주시 양보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강 시장은 오히려 “어떤 대답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강 시장은 “무안공항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살려야하며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물류중심의 화물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내놓아 입장이 뒤바뀌기도 했다.

국감질의 자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광주시의 업무보고를 들고 즉석에서 질의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광주지역의 청년실업률 11.6%로 가장 높다고 지적한 한 의원에게 강 시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지역 청년실업률이 7%로 낮아졌다”고 받아넘겼다.

외국인전문단지가 꼭 차 이후 외국인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한 의원의



20일 오전 광주시장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질의에도 강 시장은 “그런 사정을 감안해 외국인전문단지를 추가로 조성 하려고 신청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지원 문제로 꺼리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한창인 전남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등

일부 의원은 감사 대상 지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없이 감사장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시간 제약이 있는 국감장에 5·18 행불자회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5·18 공적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공적심사위원들의 반론이 없어 일방적으로 문제제기에

그치지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번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 참석했었지만 다분히 전투적이었는데 이번 국감은 너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국감 인물

광주시 재정 등 22개 질의 서면 제출

선진당 이명수 의원

20일 광주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은 지방2반(반장 백원우 민주당 의원) 소속 11명. 이 가운데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불참했고, 한나라당 3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1명, 미래희망연대 1명 등이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감안한 구성이었으나 정작 이날 국정감사장을 사로잡은 사람은 충남 아산시가 지역구인 이명수(55) 자유선진당 의원이었다.

그는 대부분 의원들이 광주시의 현안 설명을 듣고 앞으로 잘 하기를 ‘당부’하거나 다른 의원이 한 질의를 반복한 것과 달리 다양한 지역 자료를 근거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보도를 토대로 사전에 지방재정·공기업·일자리·도시경쟁력·도시재생·호남고속철도 등 무려 22개의 질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또 10분으로 정해진 국감 현장 질의에서는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교육·산업·환경·도시개발 등 각 분야와 문화 접목시켜 문화로 시작하고 끝나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나치·전남도와와 통합문제·자치구 재정·영산강사업 등에 대해서도 강 시장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진핑, MB는 평화 웨방꾼” 박지원 발언

靑 - 민주당 정면 충돌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발언 진위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내용의 핵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해 5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베이징 방문 자리에서 “현재의 한국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에 하지 않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합의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강 시장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수도권 인접 지역을 집중해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등은 이전 보조금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때 수도권으로부터 거리, 재정자립도, 1인당 GDP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아일랜드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20여일 앞두고 여야가 초당적 협조를 해야 할 시점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흡입 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당시 면담요록을 상세히 검토해보니(시진핑 부주석)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면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도 확인해 보니 그렇게 추론할 만한 것은 없었다”며 “평화와 외교의 웨방꾼은 바로(박지원 원내대표) 자신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탄을 날렸다.

민주당도 홍영표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며 “사실을 지적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오만한 반응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총대반은 언론에 밝힌 것을 두고 이적행위라고 말한 것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전포고에 아닐 수 없다”며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최경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등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대범죄 검거율 낮고 교통사고 사망률 왜 높나”

■ 광주지방경찰청 국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지역 5대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데 대해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절도범 검거율을 보면 2007년 30%, 2008년 36%로 소폭 향상되긴 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최근 3년간 전국 5대 범죄 검거율이 78.6%인데, 광주는 61.3%에 불과하다”라며

“광주의 경우 외근 형사의 나이가 대부분 40~50대인데, 고령화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성철 광주경찰청장은 “고령화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경력을 적절히 배치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광주의 경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률이 168명인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은 101명·105명”이라며 “광주경찰청 업무 차량 위반율이 높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양 청장은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데다, CC-TV(폐쇄회로) 등 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때문”이라며 “광주시와 협의해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경찰청 경찰관들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가정 문제 등으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과·실적주의에 따른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영역에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지난 8월 말 동부경찰서에서는 여기서 수행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양 청장은 “현재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5할 자치 되게 조세 배분 조정해야”

강운태 시장 국감서 자치권 강화 건의 눈길

강운태 광주시장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장·단기 대안을 조목조목 설명해 국감 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보고를 한 뒤 ▲지방재정확충 조세제도 개선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차별화 지원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분권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선 “총 조세수입 중 중앙과 지방간 세입 및 세출의 비중이 지방 자치 실시 이후에도 변함없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 부가세와 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0~15%로 조정하고, 부동산 관련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50%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5할 자치’가 가능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강 시장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수도권 인접 지역을 집중해 광주, 전남, 부산, 경남 등은 이전 보조금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때 수도권으로부터 거리, 재정자립도, 1인당 GDP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아일랜드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건35 단층슬라브 창고30평 교통 좋고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시 입주 가능 땅 1억 주인직

5000평
전남 보성 계획 관리 대로전 5000평 완전평지 현행과수원 아파트 빌라 연수원 귀농 등 최적 개발업자 환영 땅 3억 주인직

문의 011-837-3140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요일·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응용 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신 축” 매매·임대 (원룸·투룸)

원하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에서 이전까지)

주소	동구 계림동	남구 방림동	서구 동성동
대지㎡/형	294 / 88.94	383.1 / 115.89	264.3 / 79.95
건물㎡/형	651 / 193	650 / 197	582.98 / 176.35
매매액	6억1천만원 (용자 1억 4천만원 포함)	7억9천만원 (용자 1억 5천만원 포함)	7억9천만원 (용자 3억원 포함)
건대매매액	원룸14개·투룸2개 4층주인세대(최고급자재)·풀옵션 “수익성최고!”	1층, 상가 점포 3칸 원룸18개, 4층주인세대(아파트50명형, 옥실 웰빙 최고급자재)·풀옵션. “수익성최고!”	1층 상가 (편의점점포) 점포 1칸 원룸 9개 투룸6개 최고급 자재사용, 풀옵션 “수익성최고!”

임대문의
* 원룸 : 보 200만원/월 33만원
* 투룸 : 보 300만원/월 43만원(연·투룸관리비 포함)
* 풀옵션·즉시입주가, 위치중요, 교통편리, 매매·임대
* 차량등록 상가 165㎡(50평) 현재 상업용, 매 5억6천만원

장흥부동산 중개컨설팅
TEL. 062-369-0347
010-8625-3328 / 010-5050-8145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부동산 더실 환인 전문 공동중개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전남·북시군 지사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장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시외·시내 출장전문
★체육대회·야유회
★식탁·의자 무료지원
★연회장 주차장 완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전주지사 (063)277-0083